# 광주산 치과제품 독일서 3천만달러 수출 계약

### 광주테크노파크 지원 22개사 쾰른 국제치과전시회 참가

### 국내외 치과산업계 기술력 인정

광주지역 치과산업분야 기업들이 세계 치과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에 참 여, 3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계약을 성사 시키는 등 국제 치과산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격년제로 독일 퀼른에서 열리는 치과박 람회 '2017 국제치과전시회(IDS 2017)'에 참여한 광주지역 기업들은 중국, 독일 등 외국 기업과 총 3100만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

올해 37회를 맞는 'IDS 2017'은 치과용 합금, 치과교정용부품, CAD/CAM부품,

임플란트 등 최근 치과 트렌드를 알 수 있 는 박람회로, 60개국 2400여 개사 14만 5000여 명의 전 세계 치과산업 마켓 리더 등 치과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적 위상 의 치과 박람회다.

광주시는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기업 121개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는 (주)쿠보텍외 22개 기업이 광주시와 (재) 광주테크노파크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치과 제품들로 '광주 관'을 별도로 마련해 세계 치과산업을 이 끌 혁신기술과 관련 제품 등을 선보였다 고 26일 밝혔다.

광주지역 참가 기업의 성과를 보면 ▲ (주)쿠보텍(대표 정철웅)은 인도네시아 PTDI사와 5년간 500만달러 ▲(주)KJ메 디텍(대표 문대선)는 터키 NTA Implant 사와 5년간 500만달러 ▲(주)굿닥터스(대 표 김영운)는 독일의 Gruneworld Gm→ bH 등 2개사와 5년간 300만달러 규모로 수출계약을 했다.

이와 함께 이쎈코리아, 아이씨엠, 덴바 이오, 알파덴트, 하이템, 아이디, 디엔아 이, 쿠보텍, 디멕스 등이 각각 100만~300 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해외시장 진출의 큰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

이같은 지역기업의 성과는 광주시와 광 주테크노파크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가 지금까지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을 꾸준 히 육성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는 지난 2002년까지 관련 기업이 2 개 정도로 의료산업의 볼모지에 가까웠지 만 광주테크노파크에 타이타늄센터를 유 치하면서 매년 10%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 하며 현재 210개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남대와 조선대 치과대학의 적극 적인 참여가 의료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했 다는 평가다. 광주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 아보기 힘든 산·학·병·연의 강한 네트워 크를 갖추고 있고, 임상의가 기업의 기술 개발과 마케팅 등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해 지역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도 움을 주고 있다.

이상배 시 전략산업본부장은 "치과산 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고부가가치 치과산업 클러스터와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며 "해외 선진기업 유치로 관련 기업 집적화에 가속도를 내 광주가 명실공히 글로벌 치과산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 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주말 풍영정천 기름유출…광주시 신속 대응

### 하남3교~극락천 합류지점

광주시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광산 구 하남3교 아래 풍영정천에 기름띠가 형성돼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했다.

광주시는 사고 당일, 즉각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사고를 전파하고 방제작업을 위해 서구, 북구, 광산구청과, 한국환경 공단,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방 제작업을 요청하고, 시와 이들 기관 관 계자 26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흡착포 살포, 오일펜스 및 오일붐 5개소를 긴급 설치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유회수장치 〈사진〉 를 동원해 유류를 수거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하남3교 밑 제2배수관

문에서 유류가 유입돼 풍영정천을 거쳐 극락천 합류지점까지 유막이 형성됐으 나, 시의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처로 영 산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

윤장현 광주시장도 25일과 26일 연이 틀 기름유출 사고 소식을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방제작업을 진두지휘

광주시는 유류 배출업소 색출 및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어제부터 3 개 단속반 6명이 하남산단 주변 하수구 맨홀을 역추적하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류 배출업체가 적발되면 강력 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형사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인생 이모작 선배 비법 전수 광주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올 상반기에 운영되는 '이모작 학습공동체 열린 교실' 의 참여자를 강좌별로 모집한다.

이모작 열린 교실 교육 과정에는 스마트 폰의 주요 기능과 유용한 어플 활용법을 학습하는 ▲즐기자! 모바일 라이프, 바른 자세와 건강 유지를 위한 ▲으랏차차! 중 년들의 몸 펴기, 영화를 통해 자신을 새롭 게 바라보고 미래를 건설해보는 ▲치유적 영화 읽기 등 총 6개 강좌가 있다.

올해 개설된 '이모작 열린 교실'은 중장 년세대가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 로 스스로 강의를 기획하고 개설해 상호 간 에 배우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 월 모집 공고를 통해 1차 서류 심사, 2차 수 업 시연의 절차를 거쳐 강사를 선정했다.

강좌별 수강 신청은 강좌 일정에 따라 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에서 가능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생이모작지원 팀 담당자(062-600-5242)에게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상무시민공원 안중근 동상 제막 지난 25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박주선 국회부의장, 최상준 민주평 통부의장 등 주요 내빈들이 동상제막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자전거 이용 편리하게…전용도로 정비·안전학교 추진

광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형 자전거 이용 지 역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대폭 정비

광주지역 자전거도로는 기존 시가지 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76%로, 도로 폭이 좁고 버스 승강장·가 로수·전봇대 등 각종 지장시설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도 불편을

겪어왔다.

광주시는 올해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해 15억5000만원을 투자해 노후자전 거도로 5.0km, 단절구간 1.5km, 겸용도로 2.0km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도로 10km를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와 어등대교 인근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 편의를 위한 횡단교량 384 m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도 추진할 계획

또한, 자전거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광 주천·영산강 자전거 전용도로도 정비한 다. 파손된 구간을 다시 포장하고 광주 천~너릿재 옛길 단절구간도 정비해 광 주와 나주·담양·화순까지도 자전거로 다 녀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 '자전거 겸용도로 안전도 개선을 위한 정 비시범사업' 구간에 선정돼 특별교부금 2 억워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 반기에도 행정자치부 사업인 '2017 자전 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사업' 또한 공 모할 계획이다.

김남균 광주시 도로과장은 "앞으로도 생활형 자전거 정비사업의 확대와 함께 자전거거점터미널, '찾아가는 자전거 안 전학교'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도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제2남도학숙 내년 2월 개원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울에 유학중인 광 주·전남지역 출신 대 학생들에게 유학 편의 를 제공하기 위해 상 생협력과제로 공동 추 진한 제2남도학숙이 내년 2월 문을 연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498억원을 들여 첨단 설계를 적용,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건립

하고 있는 제2남도학숙이 3월 현재 지상 층 골조공사 중이며, 마감공사와 시운전 을 걸쳐 오는 11월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6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남도학숙 은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도서관, 독 서실, 구내식당,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최첨단 학사관리시스템을 갖

기숙사비는 기존 남도학숙과 동일한 월 15만원으로, 지역 유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남도학숙 조감도

한편, 동작구에 위치한 제1남도학숙 은 850명을 수용해왔지만 입사 경쟁률 이 치열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2014년부 터 '제2남도학숙 건립 방안 정책 연구'를 시작, 2015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 고 건립을 추진했다.

오순철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지 난해 철도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에 어려 움을 겪었지만,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적기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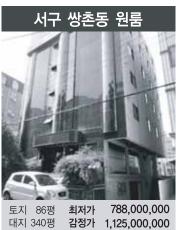


# 경.공매컨설팅 [투자금 100% 책임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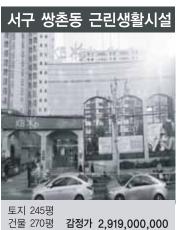




광산구 옥동 공장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00명 모집 광주법원 입구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